



Global Partners. 이 영대, 전 애림 선교사

'24년 03월

Brazil 연락: 55-11-2338-8172(아파트), 55-11-9-7394-3534(핸드폰)

E-mail: ydleeabrako@gmail.com 참조 Site → WWW,ABRAKO.COM

신학은 서기 340년부터 영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 그러나 선교학은 이보다 훨씬 늦게 1702년 독일 신학교에서 Gustav 교수가 첫 강의를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 신학교는 1960년부터, 한국 신학교는 1980년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다. 못된 마귀는 이처럼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를 아주 지능적으로 방해했다. 저의 부친이 한국에서 브라질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해외 선교비를 교회 전체 예산에서 50%를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교회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 통과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당시 상파울 선교 교회가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실 저의 부친은 1960년대에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했기에 선교학 강의를 듣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이처럼 선교에 힘쓴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해외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전주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 약 170여개 교회가 해외 선교비를 교회 전체 예산에서 50~70%까지 사용하고도 교회가 잘 유지가 되고 부흥이 되고 있을 뿐더러 교회가 받은 영육간에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Africa 신학교 제 7회 졸업 예배, MK 학교, 건축 공사가 완공되어 '헌당예배'를 지난 2024년 2월 24일(토) 오전 09시에 드렸습니다. Bissau 시내에 있는 Bissalanca 교회당에서 졸업생 12명을 비롯하여 많은 축하객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Brazil에서 9명의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고 현지에 도착한 고영규 목사(Brazil. Agua Viva 담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저가 졸업생들에게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훈사를 겸한 격려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여러분은 목회자로서 교회 개척자임을 깊이 깨닫고 복음 전도자로 무장될 수 있는 모든 노력에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격려했고, **둘째** 매일 성경 말씀을 최하 30장 이상 읽고 성경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신실한 일군이 되기를 격려했고, **셋째** 매일 기도 생활을 최저 30분 이상 드릴 것을 격려하면서 저가 고등학교 2학년때(당시 18살)에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도록 매일 새벽 05:30에 일어나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드디어 18개월 후에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신학교가 Bissau 현지 정부에 신청하고 있는 정규 대학 허가서가 통과되어 신학과, 교육과가 개설되어 많은 목회자, 정규 학교 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월 26일(월) 오전 09시에 MK 학교 교정에서 재학생 어린이, 227명들과 교사들이 건축 공사가 완공되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건축 공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 학교가 국제학교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 학교에도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한국어반들이 개설되어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의 직원이 될 수 있는 꿈,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UN 본부의 직원이 되면 초봉이 년 미국 화폐 단위로 연간 10만 달러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꾸준히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날이었습니다.

Africa, 신학교 강의를 위해 Brazil에서 다가오는 05월 02일에는 Hsiung 목사(선교학 전문가)가 4주간 현지에 머물면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 뿌려질 복음의 씨앗에 100, 60, 30배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폴투갈 항공사(TAP Ailine)가 독점 노선으로 비행기 요금이 상파울에서 Bissau 현지까지 3,050불(거리는 3700마일 정도)인데, 이전에 취항했던 비행기 요금이 1500불 선이었던 Morocco Ailine도 빨리 상파울에서 Africa, Bissau로 취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상파울에 2005년도에 설립된 Instituto Biblico Abrako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파울 선교교회 교육관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신입생 모집에 애로가 있어서 상파울 변두리 지역, Pirituba 지역으로 이전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사과정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가운데 졸업생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생활비 마련이 순조롭도록 브라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브라질 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 많은 한인 동포들이 한국으로 다시 되 돌아가고, 지난 날에는 동포 숫자가 약 5만명이었으나 지금은 1만여명도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라질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상파울에 있는 45개 한인 교회를 비롯해 브라질 현지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www.abrako.com)

[기도 제목]

- 1)상파울 신학교, Africa 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인재들’을 많이 세워 주소서.
- 2)Africa, Bissau 현지 정부에 ABRAKO 신학교가 정규 대학교로 승인될 수 있도록.
- 3)상파울 신학생, Erika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Tunisia로 출발했는데, 현지 언어 습득에 지혜를 주시도록
- 4)상파울 신학생, Ana Lucia도 근무하는 병원 일에 메이지 않고 선교사로 헌신할 기회를 주시도록
- 5)브라질, Africa를 비롯해 한국 경제를 부흥시켜 많은 동역 교회, 후원자들을 세워 주소서.
- 6)후원 교회, 후원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소서.
- 7)상파울시, 근처에 있는 Mogi das Cruzes시에 ‘선교 학교’가 복교되든지, 다른 곳에 선교 학교가 시작 될 수 있게 해 주소서.



제 7회 졸업생 일동



졸업생들과 교수, 관계자들



졸업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고영규 목사



졸업 예배에서 축사하는 이 선교사



졸업증서를 수여하는 이영대 선교사



MK 학교 헌당 예배에서 축사하는 이영대 선교사



완공된 MK 학교 모습



왼쪽은 MK 학교, 건물

오른쪽은 신학교 건물